



# 노사·주주 힘 하나로 기사회생 날개 ‘활짝’

쌍용자동차가 고강도 자구안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지만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무분규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의 모습을 보면 과거 2001년 SK하이닉스와 2016년 대한조선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다. 두 회사는 당시 청산위기까지 내몰렸지만 노사간 고통 분담을 통해 벼랑끝에서 기사회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95만대를 생산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내수는 152만대로 전년 대비 1.0% 줄었으며, 수출은 240만대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세계 자동차시장 역성장도 코로나19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량 조정과 인력 전환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쌍용차 역시 미래 생존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두 차례에 걸친 고강도 자구안을 펼치고 있다.

쌍용차의 경영 쇠퇴 노력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쌍용차는 국내 완성차업계 중 가장 먼저 2019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자구 노력에도 직원과 노조가 모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1차 자구방안의 경우, 노동조합이 고용 및 경영안정을 위한 회사의 비상 경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1차 자구안에는 ▲근속 25년 이상 사무직 안식년제 시행 ▲명절 선물 지급 중단 ▲장기근속자 포상 중단 ▲의료비 및 학자금 지원 축소 등 22개 복지 항목에 대한 중단 또는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노사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렀다.

**10년 연속 무분규 경쟁력 확보 집중 경영정상화 위해 직원·노조 합의 인건비절감 등 자구방안 94% 동의 마힌드라 대주주 “책임·역할 다할 것”**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자구방안에는 ▲상여금 200% 반납 ▲PI 성과급 및 생산 격려금 반납 ▲연차 지급률 변경 등 인건비 절감을 비롯한 고강도 경영 쇠퇴책이 담겼지만 임직원들은 94%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쌍용차 임직원들은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연간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포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쌍용차 직원들의 이같은 노력에 대

주주인 마힌드라도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6일 평택공장을 찾은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노동조합, 팀장, 공장, 대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계층별 간담회에서 대주주로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엔카 의장은 수차례 ‘완전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쌍용차가 조속히 흑자전환을 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내수·글로벌 시장에서 20만대까지 판매량 증대 ▲재료비 절감 ▲인건비·비용 절감 ▲제품 개발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 ▲마힌드라의 투자 의지 표명 등 쌍용차에 대한 지속 경영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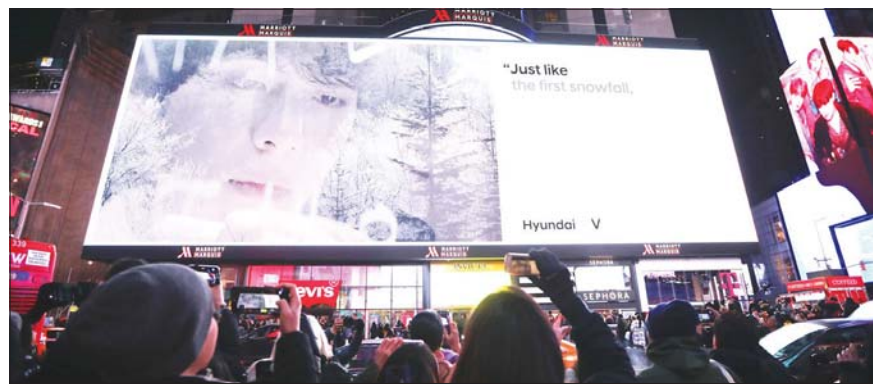
쌍용차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수출 회복을 위해 신형시장 진출과 함께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등 유럽 현지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럽 시장 내에서 쌍용차는 영국 사륜구동 전동차 포바이포(4x4)의 ‘2020 올해의 픽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달 자동차전문지 ‘왓카’가 발표한 ‘2020 올해의 차’에서도 ‘최고의 픽업(2만8000파운드 이하)’에 선정되는 등 잇달아 제품력과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 최초 공개 현장에 모인 사람들

현대차, 美서 BTS와 함께 수소 캠페인 공개

## “미래수소사회, 환경보호 앞장”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서 상영 ‘자연이 삶에 주는 감동’ 주제

현대자동차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21일 저녁 하루 유동인구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상업, 금융, 문화의 중심지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에 위치한 메리어트 마퀴즈 호텔 전 광판을 통해 상영됐다.

수많은 팬들과 관광객 그리고 고객들로 가득 찬 타임스퀘어에서 1시간 동안 상영된 영상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각자의 손글씨를 통해 ‘파

란 하늘’, ‘첫 눈’, ‘숲’ 등 ‘아름다운 대자연이 삶에 주는 감동’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물 이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차 ‘넥쏘’가 등장하는 영상을 통해 현대차가 그려나갈 미래 수소사회에 대한 비전과 노력을 전했다.

타임스퀘어를 방문한 시드니 카디엔 씨는 “현대차만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 내 좋았다”며 “이번 수소 캠페인 영상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과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부터 작은 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26일부터 각 멤버별 한 편씩 현대차 SNS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KT, ‘올레tv’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예방수칙 담은 광고·자막 송출

KT는 ‘올레tv’를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담은 광고 및 자막을 송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KT는 현재 올레tv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30초 분량의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올레tv 시청자는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하기 전 일반 광고 대신 코로나19 예방수칙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 영상 외에도 셋톱박스 전원을 켜면 처음 화면에 나오는 올레 tv 가이드 채널 999번에서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을 자막으로 송출한다.

아울러 KT는 지난 12월 3차 전세기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문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에 인터넷, 와이파이, 올레 tv 등 통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했다. 이를 위해 KT는 입국 전날인 11일 24명의 직원을 국방어학원에 긴급 투입해 303개 전 객실에 올레 tv를 설치하고 인터넷 39개, 와이파이 96개, 일반전화 7개 회선을 설치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프리즘라이브’ 韓·美 구글플레이 피쳐드 동시 선정

(스트리밍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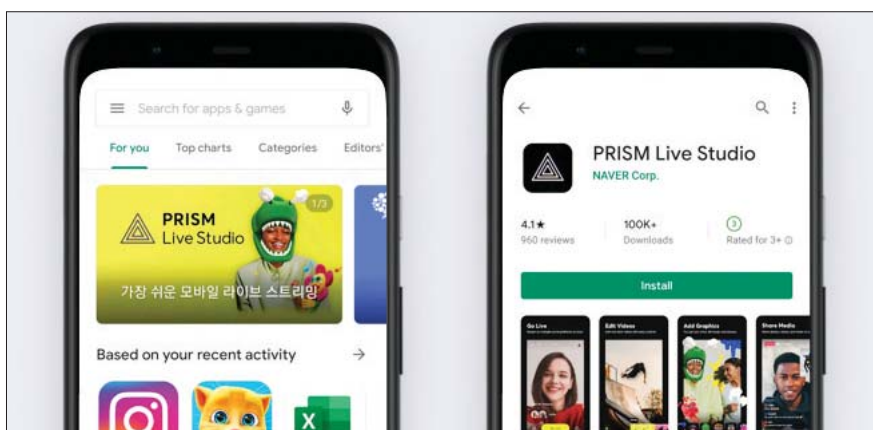
네이버 하나의 앱으로 촬영·편집 라이브 앱 다운로드 기준 1위 달성

네이버의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앱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21일 한국과 미국 구글플레이의 피쳐드에 동시 선정됐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라이브 방송과 동영상 편집 도구를 제공하는 전문 라이브 스트리밍 앱이다. 사용자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하나의 앱에서 라이브 방송 촬영부터 동영상 편집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간편하다.

피쳐드는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중 이용자 평점(4.0 이상 유지), 사용성, 편리성 등 심사 기준을 기반으로 전문 엔지니어들의 서비스 검증을 통해 선정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인 화면 상단에 추천 앱으로 소개된다.

지난해 3월 정식 출시된 프리즘 라이브



네이버의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앱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21일 한국과 미국 구글플레이의 피쳐드에 동시 선정됐다. /네이버

스튜디오는 구글플레이 모바일 라이브 앱 다운로드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매일 약 2500여 건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4만8000시간 분량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프리즘라이브 스튜디오에는 고도화된 라이브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송출 기술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적용해, 사용자가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는 자체 보유한 140여 개의 무료 음원을 포함해 540개 이상의 다채로운 이펙트와 텍스트효과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에어아시아, 3일간 한정 특가행사

## “호주, 역대 최저가로 다녀오세요”

시드니 9만 2500원부터 가능

에어아시아가 단 3일 한정 특가 행사를 나섰다.

에어아시아는 4시간 이상의 중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오전 1시부터 27일 오전 1시까지 72시간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예약 가능한 출발 날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직항 노선은 물론 간편환승이 가능한 시드니와 퍼스 등 호주 주요 노선을 역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쿠알라룸푸르 2만8000원 ▲퍼스·골드코스트



에어아시아의 72시간 한정 타임 특가 이미지. /에어아시아

트 7만5000원 ▲시드니 9만2500원부터 구매 가능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쿠알라룸푸르 2만3000원 ▲퍼스·골드코스트 7만원 ▲시드니 8만75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